



조각과 건축의 경계에 놓인 특이한 작업인 신산공원의 88올림픽 조형물은 기하학적 요소로 도드라진 성과를 낸 작품이다.

기하학 보편미로 올림픽 이념 담다

신산공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XXVI 서울올림픽 메모리얼은 1988년 8월 27일 그리스의 헤라신전에서 채화되어 항공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서울올림픽성화의 기억과 이 대회에 이념을 알리기 위해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세운 기념조형물이다. 이 기념물을 설계한 조각가 정보원씨는 이 작품을 '신들의 황혼'이라 명명하고 있다. 노을녘에 이곳에 와서 여러개의 높거나 낮은 수직의 열주군이 연출해놓은 신성함을 체험해보라는 권유일까.

이 작품은 올림픽이라는 인류사적 이벤트 관련 역사성으로 비중이 크지만 선례의 우리 조형물들이 타성인 사실 표현과 메시지의 직설성에서 벗어난 혁신적 작업으로 작품 전반에서 뚜렷한 성과를 낳은 작품이다. 작품의 주조는 철저히, 아주 철저히 기하학의 요소만으로 기조를 삼고 있다. 직선과 사선, 수직과 수평, 사각과 원과 구형, 그리고 나선 등... 이 기하학적인 형태요소들은 다시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 원리들에 의하여 작업을 완결시키고 있다. 즉 형태와 규모와 재료에서의 조화와 대비, 높이와 방향성이 다른 수직과 사선의 입방체들의 수직인 비례와 균형, 나선의 반복과 리듬 등등... 마치 형식미학 논리에 따른 형태구성의 교과서를 보는 듯하다.

'규구순송(規矩準繩)'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을 보면 '인간 행실의 표준, 사물의 준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규(規)'는 컴퍼스(compass), '구(規)'는 곡자(曲尺), '준(準)'은 수준

기(水準器), '승(繩)'은 먹줄을 가리키는 말로 '원, 직각, 수평, 직선'이라고 하는 기하학의 기본 요소를 나타낸 표현이다. '원, 직각, 수평, 직선'에 의하여 비로소 인간은 '인간행실의 표준'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뜻이겠다. 자연에 대하여 인간이 이뤄낸 최초의 업적이 기하학이다. 기하학적 사유(思惟)가 인간을 인간이게 한다.

역사적으로 수와 기하학은 완벽한 형태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 기준이 되어 왔다. 기하학이나 수학적 비례를 이상 조형의 원천으로 하려는 것은 기하학적 개념과 수학적 원리가 보편적 질서와 조화를 인간의 의식 속에 형성시

역사적, 비문화적인 호소력을 지닌 것 이어야 하고 만인의 감각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단순하고 강한 형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형의 기본적 질서는 무엇보다도 만인에게 공통된 공약수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사실로부터 유도된 것이어야 하고 취향이나 감정 등과 같은 개인주의적인 용어를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지닌 용어로 대체해나가는 노력에 집중한다.

기하학적 형태는 또한 인간 순수이성의 아프리올리한 종합적 인식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영구 불변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작가는 올림픽의 이념인 세계평화와 인류에 공헌

이라는 글로벌 가치를 기하학적 형태가 가진 이 보편성과 불변의 진리로 풀어내었다. 설득력이 큰 연결이다.

이 작품은 조각과 건축의 경계에 놓인 작업이라는 특별함이 있다. 공간을

존재시키는데 그치는 예의 조각과 달리 공간을 생산해내는 조각이다. 못 기념물의 공통점에 반하여 엄숙함도 없고 오히려 율동과 생성의 활기가 감지된다.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이 기념물 속을 내달리거나 밀어내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시민들의 일상과 같아하였으면 한다던 작가의 바람이 건강하게 실현되고 있음이다.

"김선생님! 신산공원에 내 그 아이 잘 있지요?" 작가 정보원, 그녀가 오래 전 날 만났을 때 인사이다. "예, 아주 잘 지내고 있지요."

<건축가·제주대 건축학부 겸임교수>

작가가 '신들의 황혼'으로 명명
조각과 건축의 경계에 놓인 작업
엄숙함 벗고 율동과 생성의 활기

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문명의 근원인 헬레니즘이 이를 숭상하였고 우리들 오리엔탈 클래식 이 또한 그랬다. 서구 문명의 이상 형태는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고 우리들의 것은 석굴암이나 부석사의 무량수전 혹은 수덕사의 대웅전 중 하나 일 것이다.

20세기 들어 네덜란드에서 일었던 드 스틸과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 시작된 근대 조형운동은 다시 기하학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 신조형주의자들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조형원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추구한다. 만인이 공유해야 할 미적 감각은 궁극적으로 보편적, 비